

메타버스서 마케팅, 직원채용·교육까지... 비대면 전환 속도

유통가 '비대면 디지털' 일상화

BGF리테일 CU제페토 2호점 오픈
아바타 패션아이템 22만여개 판매
“국내 넘어 다양한 국가 유저 방문”

동원그룹 신입공채, 직무상담 실시
하이네켄코리아 채용설명회 개최



CU 제페토교실매점(2호점)



BGF그룹 제페토 팀 워크샵

/BGF그룹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가 컨퍼런스 및 행사 등에 적용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메타버스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채용과 직원교육, 워크샵에도 적용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universe)과 초월(meta)의 합성어다. 기존에는 게임사·엔터사에서 소통의 창구로 사용됐다면, 비대면이 일상화된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BGF리테일은 메타버스 활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CU의 세계 최초 메타버스 공식 제휴

편의점인 'CU제페토한강점'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달 14일 제페토 2호점인 'CU제페토교실매점'도 문을 열었다.

CU는 지난 8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CU제페토한강점'을 오픈했다. 제페토 내 개인 SNS인 피드의 CU 관련 게시물은 총 2900여 개, 조회수는 27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높은 관심 속에 제페토 내에서 아바타 아이템으로 판매하고 있는 CU의 패션 아이템은 무려 22만여 개나 판매됐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제페토 2호점 'CU제페토교실매점'은 제페토 맵 중에서 트래픽 최상위권 월드맵인 교실 2에 오픈한다. 해당 편의점은 Z세대들에게 익숙한 학교 내 카페テリア 형태의 점포다.

BGF리테일 연정욱 마케팅팀장은

“제페토 편의점은 잠재 고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 CU를 소개함으로써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는 등의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며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해외 유저들의 방문도 꽤 많아 글로벌 시장에 CU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채널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GF그룹은 임직원 직무교육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town)을 활용해 'BGF 가상현실 교육센터'를 열고 임직원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것.

BGF 가상현실 교육센터는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BGF교육연구센터를 실제와 똑같이 구현한 온라인 공간이다. 교육 과정 중 화상으로 음성과 시청각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강의 및 발표, 실습도 실제 대면 교육과 동일하게 진행

할 수 있다.

유통업계는 채용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동원그룹은 2021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앞서 메타버스를 통한 직무상담을 제공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커리어톡'에서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채용박람회를 진행했으며, 채용 담당자들은 메타버스에 입장한 구직자들과 실시간 1대1 온라인 화상 상담을 했다.

하이네켄코리아도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APGP(Asia Pacific Graduate Program) 채용을 앞두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채용설명회를 연다. 오는 28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채용설명회가 열리며 구직자들은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존'을 통해 기업 히스토리 및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다. 직무상담은 APG 프로그램을 경험한 현직자가 직접 아바타를 생성해 '커리어 익스피리언스존'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채용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이네켄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게 되자 사내 행사에도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창립 76주년 행사를 지난 1~3일 메타버스에서 진행했다.

본사 내 주요 공간을 메타버스에 구현해 오프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간 접속 후 캐릭터 설정 및 아이템 장착을 하고 자유롭게 회사 곳곳을 누비며 장기근속자 명예의 전당 축하 메시지 남기기, 회사 역사 퀴즈, 방 탈출 게임, 헤리티지 보물찾기 퀘스트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직원들이보다 적극적으로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쌍용자동차의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양산기념식에서 정용원 관리인(오른쪽)과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이 양산을 축하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쌍용,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수출길

초도물량 200여대 독일·영국 수출 오는 11월부터 현지시장 판매 시작

쌍용자동차가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쥔다.

쌍용차는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 수출 선적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평택항에서 선적된 코란도 이모션 초도물량은 약 200여대로 독일·영국 등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며, 11월부터 현지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쌍용차는 지난 8월 24일에 정용원 관리인 및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 등 생산 관계자들과 평택공장에서 코란도 이모션 양산기념식을 했으며, 이번 유럽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는 반도체 등 부품수급 상황을 감안해 출시 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코란도 이모션은 코란도 브랜드 가치

계승은 물론 전기차(EV)와 역동성(Motion)의 조합으로 고객의 감성(Emotion)에 충실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코란도 이모션은 패밀리카로 손색 없는 거주공간과 활용성을 갖춘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라인을 가미, 어반 드라이빙(Urban driving)에 최적화된 스타일링을 추구하고 있다.

또 경량화와 무게중심 최적화를 위해 쌍용차 최초로 알루미늄 후드(엔진룸 덮개)와 밀폐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61.5kWh 배터리 장착으로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39km(WLTP 유럽 기준)이다.

쌍용차는 코란도 이모션 선적과 함께 국내·외 시장에서 호평을 얻고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의 주요 시장 론칭도 확대하고 있어 수출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재택·집콕족 위한 '비대면 특화제품' 인기

LG전자 울트라PC 웨일북 곧 출시
'웨일 스페이스' 탑재, 교육 솔루션

삼성전자 웹캠모니터 출시
비번없이 '안면인식' 윈도우 로그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재택'에 특화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격수업·재택근무가 보편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집콕트렌드에 맞춰 양사는 프리미엄급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한데 이어 LG전자는 게이밍 스피커까지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비대면 기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LG전자, 원격수업 특화한 '웨일북' 선보여

16일 LG전자에 따르면 LG 울트라PC 웨일북이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웨일북은 네이버 교육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를 탑재한 노트북으로, LG전자는 이를 통해 최적의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초·중·고를 비롯해 대학 등에서는 유래 없는 원격수업을 도입했다. 지난 14일 기준 전국 유·초·중·고 2만446개교 중 97.2%가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LG전자는 올 초 네이버와 '스마트 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웨일북을 공동 개발했



LG전자가 선보인 LG 울트라PC 웨일북. /LG전자

다. LG전자는 웨일북에 대해 웨일OS로 구동하는 클라우드 기반 노트북으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수업 시 불필요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등 원격관리를 통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일상화된 재택근무...삼성전자 '웹캠모니터' 출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재택근무·원격회의 등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원격 화상 회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웹캠 모니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웹캠 모니터는 필요한 때만 꺼내 쓰는 화상 회의용 웹캠과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된 모니터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안면인식 보안 기능인 '윈도우 헬로' 인증을 받은 적외선 카메라를 적용해 비밀번호 입력 없이 윈도우 로그인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재택근무 30%를 권고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빅테크 기

업들이 내년 1월까지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재택근무는 성공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의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혜수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웹캠 모니터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집콕 트렌드에 커지는 게이밍 시장

집콕이 트렌드가 되면서 게이밍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연간 게이밍 모니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4% 가량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2000만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런 추세에 맞춰 지난달 각각 프리미엄급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네오G9'과 'LG 울트라기어'를 선보인바 있다. 오디세이네오G9은 삼성전자의 네오QLED TV에 탑재된 '퀵 미니LED'를 적용하는 등 프리미엄 사양을 자랑한다.

LG 울트라기어는 그래픽 전문 기업 엔디비아가 인증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중 최상위 버전인 지싱크 얼티밋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다.

/한창대 기자 cd1@